

### 멸종위기종 '긴꼬리투구새우' 전남 친환경 농지서 잇단 발견

해남·장흥 등 4곳 집단 서식

멸종위기종인 '긴꼬리투구새우'가 해남에 이어 장흥에서도 잇따라 발견돼 전남지역에서 서식지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장흥군 관산을 하발리 양촌마을 뱀(1천㎡)에서 긴꼬리투구새우가 1㎡당 30마리 가량이 집중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강진, 해남, 영광 등 전남지역 4곳에서 긴꼬리투구새우의 서식지가 잇따라 발견됐다.

환경부 멸종위기 2급 희귀생물로 알려진 긴꼬리투구새우는 모내기가 끝날 때 알을 낳은 후 7월 하순경 소멸하는 1년생 생물로 몸통 길이 3cm, 꼬리 2cm, 진한 초록 색깔의 원통형으로 앞 부분이 넓고 납작한 모양을 하고 있다. 특히 물벼룩, 잠초어린 싹을 먹고

사는 잡식성 생물로 먹이를 찾기 위해 진흙을 깊이 파고 뒤집어 잡초밭을 역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죽은 뒤 분해되면서 유기비료로 환원돼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처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긴꼬리투구새우가 최근 자주 발견되는 것은 전남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볏짚, 자운영, 호밀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만으로 벼를 재배하던 중, 긴꼬리 투구새우가 발견된 것으로 미뤄 친환경 농업 때문에 땅이 살아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친환경 청정 지역으로서의 장흥군을 지켜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멸종위기 2급 희귀생물로 알려진 긴꼬리투구새우는 모내기가 끝날 때 알을 낳은 후 7월 하순경 소멸하는 1년생 생물로 몸통 길이 3cm, 꼬리 2cm, 진한 초록 색깔의 원통형으로 앞 부분이 넓고 납작한 모양을 하고 있다. 특히 물벼룩, 잠초어린 싹을 먹고



장흥군 관산을 하발리 양촌마을에서 발견된 긴꼬리투구새우의 모습.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앙 및 지자체의 협력강화 방안' 설명회가 1일 오후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광주·전남북 기초자치단체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정부-지자체 지구 온난화 극복 나섰다

### 온실가스 배출량 DB구축·시민 감축 운동 전개 자전거 타기 등 지자체 특색있게 환경정책 추진

정부와 지자체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에 이르는 등 각종 유해물질 배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은 기후변화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와 환경부는 1일 오후 3시 광주시청 3층 회의실에서 광주·전남북 등 호남권 기초자치단체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앙 및 지자체의 협력강화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 국장은 또 한국기상연구소 분석결과 2080년까지 우리나라 기온은 5도 가량 상승하고 해수면도 2100년이 되면 50cm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난 2005년 5억9천100만톤으로 1990년에 비해 무려 98.7% 증가한 것과 무관

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지자체와 정부는 ▲기존 에너지 정책 답습 ▲관련법이나 조례 등의 부재 ▲전문인력 등 부족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 국장은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는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가정, 상업시설에서 에너지절약을 통해 감축시킨 온실가스만큼 포인트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광주와 여수는 지난 4월과 5월 온실가스를 줄이고 다양한 환경 관련 정책 수단을 시험하

는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에 선정되기도 했다. 환경부도 지난달부터 지자체와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계로 내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 중앙·지방 합동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자체 교육과 홍보 또한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광주시의 탄소은행제나 부산시의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창원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사업 등 각 지자체의 특색에 맞는 환경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갈수록 환경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지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 도다리·민대구 사라진 자리 가재·게·오징어 자리 잡았다

美 연구진 어획물 기록 분석

지구 온난화로 일부 해양 생태계에서 물고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가재와 게, 오징어가 메우고 있다고 라 이브사이언스 닷컴이 보도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립대 연구진은 로드 아일랜드 사운드 일대의 저인양 어획 기록 50년치를 분석한 결과 일대에 서식하는 해양 동물들이 점차 척추동물(물고기)에서 무척추동물(가재·게)로, 바다 밑바닥에서 먹이를 찾는 종에서 보다 얕은 수심대의 종으로, 냉수대의 큰 종에서 온수대의 작은 종으로 바뀌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런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지만 1980~1981년 사이엔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도다리와 민대구 등 바다 밑바닥에 사는 종들이 줄어들고 은대구와 게르치 등 해수면과 가까운 곳에 사는 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먹이기술 변화로 식물성 플랑크톤이 점점 더 동물성 플랑크톤에 많이 잡아먹히는 바람에 바다 물고기에 먹히는 현상이 줄어들게 되고 바다 물고기들이 수면과 가까운 윗층으로 올라가게 됨에 따라 가재와 게가 바다층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中 올림픽 환경재해?

올림픽 요트경기가 열리는 중국 칭다오(靑島)에 바닷물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녹조현상이 확대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올림픽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칭다오의 요트경기장 수역까지 녹조가 침투하자 중국 중앙 지도부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녹조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칭다오 주변의 녹조현상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돼 올림픽 요트경기가 열리는 제한수역 49.5km 가운데 30%가 넘는 15.9km의 수역이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 수온의 상승과 함께 물속의 영양분이 많아지는 부영양화가 주된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요트 훈련장을 비롯한 주변 수역에도 계속 녹조현상이 확대되고 있어 30여개국 요트 선수들의 훈련이 막대한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칭다오의 수려한 경관도 크게 훼손되고 있다.

현지 정부는 겉으로는 크게 내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부상장 등 고위관부와 전문가들이 수차례나 칭다오를 오가면서 녹조 퇴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칭다오시가 주요 도로에 공안을 배치하고 무장 경찰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인 현지에 파견돼 현장 지도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칭다오 요트경기장 녹조 30% 넘게 확산

장다밍(姜大明) 산둥(山東)성장은 지난 달 28일 당 중앙과 국무원도 최근 칭다오 부근 수역의 녹조 재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해조류 퇴치를 산둥성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아 올림픽 요트경기장을 순조롭게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산둥성은 이미 녹조 감시, 해소 퇴치, 연구 등 전문 팀을 구성했으며 중국 국가해양국도 최근 현지에서 긴급 방제회의를 열고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측 해양 전문가들은 녹조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해조류가 독성이 없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 영양가치도 갖고 있다며 수거한 해조류를 양계장이 양돈장의 가축 사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휴대전화 전자파, 건강에 이상없다

獨 방사능보호청 조사

휴대전화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독일 연방방사능보호청(BFS)의 조사 결과가 지난 달 30일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그마트 가브리엘 독일 환경장관은 "독일 이동통신 연구 프로그램에 따라 2002년부터 2008년까지 50차례 이상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나 송신탑이 필수적인 자기장 한도 내에서는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아무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프로그램에는 1천700만 유로(260억원 상당)가 지원됐

으나 이는 지난 2000년 독일 정부가 제3세대 이동통신(UMTS) 사업자 선정 당시 거둬들이 수심역 유로에 비하면 적은 규모다.

연방방사능보호청은 휴대전화의 인체 유해 여부를 가리는 이번 연구 프로그램에 독일 이동통신 4대 사업자가 기금의 절반 이상을 맡은 데 대한 논란이 일자 "이번 조사 과정은 연구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주파 전자기장의 기능적 메커니즘, 전자기장이 사람과 동물에 미치는 영향, 독일인들이 자기장에 노출된 정도 등을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 동양의 허반이 HAINAN

### 무안 ↔ 하이난(삼아) 직항

매주 수,토 4회 편성 ₩899,000~  
6/27, 7/4, 7/11, 7/18편

### 무안 ↔ 장사(장가게) 직항

매주 월,목 5회 편성 ₩749,000~  
7/7, 7/14, 7/21, 7/28, 8/4편

### 4명부터 출발가정 ₩999,000~

### 4명부터 출발가정 ₩949,000~

## 자성 최대의 무풍도섬 장가게

문의: 전남 북 동원여행사 판매, 광주AMAC 문화여행 사부실 | 061-225-6070

4명부터 출발가정 ₩999,000~

4명부터 출발가정 ₩949,000~

문의: 광주AMAC 문화여행사 부실 | 061-225-6070

4명부터 출발가정 ₩999,000~

4명부터 출발가정 ₩949,000~